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글로벌 경기침체 이제 시작인가?
- ◇ (초점)-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향한 기대감 낮아
- ◇ (칼럼)-추경 플랜 B 가 금리인하?..기재부, 한은에 책임 떠넘기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준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송환법 도입 철회와 홍콩 정부 지도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로이터/타이런 슈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14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85.3	-0.3%	-5.9%	-4.1%	유로	1.1207	-1.1%	-2.3%	-4.4%
100엔 대비	1,093.0	-0.1%	-7.1%	-6.9%	엔	108.55	-0.3%	0.9%	2.8%
유로 대비	1,330.0	0.6%	-4.0%	0.2%	위안	6.9212	-0.2%	-0.7%	-5.3%
위안 대비	171.34	-0.3%	-5.6%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089.61	0.4%	11.8%	-5.6%
코스피	2,095.41	1.1%	2.7%	-17.3%	나스닥	7,796.66	0.7%	17.5%	-3.9%
코스닥	722.25	0.8%	6.9%	-15.4%	S&P500	2,886.98	0.5%	15.2%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06.24	0.6%	6.1%	-16.2%
국고채 3Y	1.470%	-6.7bp	-34.7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500%	-6.6bp	-38.4bp	-45.9bp	미국채 2Y	1.845%	-0.7bp	-65.3bp	60.7bp
국고채 10Y	1.591%	-6.5bp	-35.7bp	-52.1bp	미국채 10Y	2.084%	0.0bp	-60.7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2.51	-2.7%	15.6%	-24.8%	한국 5Y	32.21	-0.73	-5.86	-13.74
금(현물)	1,341.33	0.1%	4.6%	-1.5%	일본 5Y	21.65	-0.18	-0.14	-3.34
TR상품지수	2,404.86	1.8%	1.4%	0.0%	중국 5Y	49.73	-4.38	-16.74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6월 17일(월)>

- 한은,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18일(화)>

- 한은, 1/4 분기 기업경영분석(12:00)
- 한은, 5.31 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19일(수)>

- 특이 일정 없음

<20일(목)>

- 한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국회 제출(11:00)

<21일(금)>

- 관세청, 6월 1-20 일 수출입동향

해외 주요 주간 일정

<6월 17일(월)>

- 유로존, 1 분기 노동비용 (18:00)
- 미국, 6월 뉴욕연은제조업지수 (21:30)
- 미국, 6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18일(화)>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19 일)
- 일본, 6월 로이터 단칸 (08:00)
- 호주중앙은행(RBA) 6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10:30)
- 중국, 5월 주택가격 (10:30)
- 유로존, 4월 무역수지 (18:00)
- 유로존, 5월 인플레이션 (18:00)
- 미국, 5월 건축허가 (21:30)
- 미국, 5월 주택착공 (21:30)

<19일(수)>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20 일)
- 일본, 5월 수출입 (08:50)
- 유로존, 4월 경상수지 (17: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20일(목)>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03:00)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03:30)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결과(오후)
- 영란은행(BOE) 통화정책회의 회의록(20:00)
- 미국, 1 분기 경상수지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6월 필라델피아연은 지수 (21:30)
- 미국, 5월 경기선행지수 (23:00)
- 유로존, 6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3:00)

<21일(금)>

- 일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8:30)
- 일본, 6월 닛케이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유로존, 6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7:00)
- 미국, 6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22:45)
- 미국, 5월 기존주택 판매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전후해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압력을 높여 다시 연고점 부근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75-1195 원**이다.
-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경우 달러/원 환율은 일시적 하락 이후 재반등에 나설 여지가 크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 경계감이 다시 시장 재료로 떠 오르며 위안화를 비롯한 원화를 압박하는 구도가 재차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 미-중 무역분쟁 여파가 미국과 중국의 최근 실물 지표에서 반영되는 가운데 **20 일** 기준 한국의 수출입 결과는 주목되는 재료다.
- 글로벌 달러 약세 여건이 부상한다고 하더라도 원화는 미-중 대립 구도가 완화되지 않는 한 강세 전환을 기대하기 힘들다. 원화를 둘러싼 심리, 수급, 펀더멘털 모두가 미-중 무역전쟁과 강력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 결국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변동성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과 맞물리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에 조건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요동쳤다. 이달 말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무역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 속에 청와대와 정부, 한은이 긴밀히 공조하며 하반기 경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 오는 **18~19 일** 열리는 **FOMC** 회의는 시장에 큰 의미를 가진다. 연준이 과연 **7 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줄 것이냐가 첫 관문이다.
- **18 일** 발표되는 **5 월** 금통위 의사록도 중요하다.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 외에 조건부 금리 인하 의사를 밝힌 금통위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0 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한은은 같은 날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칼럼)-글로벌 경기침체 이제 시작인가?

(※ 이 칼럼은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 - 지난 **2008/09** 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가 경기침체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지역들에서의 무역량도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디젤과 같은 석유 소비 증가세도 둔화시킬 것이다.

롱비치, 싱가포르 등 주요 항만과 홍콩, 댈러스,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허브 공항에서 취급되는 항공 화물의 양은 **2018** 년과 같거나 줄었다.

세계 최대의 항공 화물 중심지인 홍콩 국제공항의 지난 **3~5** 월 물량은 **1** 년 전과 비교했을 때 **5%** 이상 줄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지난 **3~5** 월 물량이 전년비 **4.5%** 감소했다고 밝혀 **2013** 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 **2~4** 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테네시의 댈러스 국제공항에서의 물량은 각각 전년비 약 **3%**, **1%** 감소했다.

항공 화물은 빠른 배송을 필요로 하는 고가 상품에만 사용되지만 이는 기타 화물 부문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알리는 좋은 선행 지표이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물품들의 최대 집하지인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해상 컨테이너 물량은 지난 **3~5** 월 전년비 **10%** 줄어 **2015/16** 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싱가포르를 통한 컨테이너 물량은 **3~5** 월 전년비 **1%** 증가했지만 이러한 증가는 **2018** 년 1 분기에 비해서는 **16%** 둔화됐다.

◆ 계속되는 문제들

선행 화물 지표는 경기 둔화가 올해 말까지 계속된 후 전면적인 경기 침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JP 모간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에서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신규 수출 주문이 9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속도 또한 2015/16년 이후 가장 빠르다고 밝혔다.

수출 의존도가 커 글로벌 무역 성장률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코스피-100 지수는 5월 말 전년비 약 15% 하락했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전망지수는 201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무역 규모 증가세가 꾸준히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선진국 및 주요 신흥국 경기선행지수는 2008/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1970년 이후, OECD 지표가 이 수준으로 하락할 때마다 미국 경기는 항상 침체를 마주했으며, 다른 선진 경제국들도 경기 침체에 끌어들였다.

세계 경제는 전면적인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 2015/16년 당시 석유 및 기타 상품 가격 하락은 경제를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했지만 2017/18년 상품 가격은 다시 상승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다른 중앙은행들은 신뢰지수를 개선하고 내구재 지출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1998년 당시 금리 인하는 경제 확장을 2년 더 지속시켰다.

미국 연방기금금리 트레이더들은 이미 9월 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최소 0.25%포인트 인하하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인하해 금리가 2020년 1월까지 현재 금리보다 75bp 낮아질 것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경제는 침체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향후 6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심화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초점)-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향한 기대감 낮아

워싱턴/베이징 (로이터) -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까지 3주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졌으며, 소식통들은 세계의 경제 건전성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회담 준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싶다고 밝히며, 회담 이후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한 달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시장에서 1조 달러 이상이 사라진 것을 본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두 정상 사이의 관계를 주시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이 결렬된 지난 5월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G20 정상회의에서의 정상간 만남 가능성을 제외한 모든 가능성은 사라졌다.

중국을 기반으로 둔 한 서방 외교관은 양국 관계를 두고 "분위기가 흉흉하다"고 밝혔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관리들과 외교관들을 포함한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양국간 관계 악화로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는 부족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팀은 5월 10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 만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계획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개럿 마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G20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는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양자 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화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단한 부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차 언급하며 충분한 진전이 없거나 시진핑 주석이 불참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더 오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월요일 중국은 추가적인 무역 회담에 대해 열려 있지만 양국 리더들 간의 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화요일에는 미국이 무역 분쟁을 격화시킬 경우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양국 지도자들의 회담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겠지만 그 결과는 두달 전 제시된 두 지도자들이 역사적인 무역 협정에 서명한다는 결과보다는 퇴보한 것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안에 정통한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 지난주 미국의 기업 대표들에게 양국 간 정상회담이나 무역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큰 회의를 앞둔 준비 부족이 놀랍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사전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회담에 참석하고 즉석에서 정책을 펴곤 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인상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급 회담을 피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한 아시아 외교관은 "중국인 시진핑 주석이 의전과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며 "중국인 시진핑 주석이 당황할 수 있는 회담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칼럼)-추경 플랜 B가 금리인하?..기재부, 한은에 책임 떠넘기나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변신'을 놓고 시장에서 말들이 많다. 불과 열흘 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했던 이 총재였기에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그의 유연해진 발언에 시장참가자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한은 총재의 입장 변화, 이유는 있다

하지만 이 총재가 아닌 그 누구라도 현재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데 대해 이견을 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 총재의 입장 변화가 갑작스럽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6월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했고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감소해 0.3% 감소했을 것이라는 속도치보다 더 나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했는데,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하는 데 그쳐 199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화정책 전환의 걸림돌이었던 환율 급등세도 진정됐다. 여기에 FX 스왑과 단기 크로스 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분기 말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런 안정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외국인의 대규모 재정거래가 유입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룰 가능성이 작아졌음을 보여주는 '디테일'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미리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건 당연한 책무다.

▲'척하면 척' 의혹 부른 경제부총리 발언

하지만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는 과정에서의 모양새가 절대 훌륭하지 않았다.

마침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을 거둬들였다.

여기에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는다. '친절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총재 발언 몇 시간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통화 완화적 기조 가능성을 좀 진전해 말한 것 아닌가 이해한다"고 말한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이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해준 셈이 됐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와의 교감' 아래 한은 총재가 움직였다는 시장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일부에선 지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논란의 재판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이 총재와 만난 뒤 "금리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은은 이후 한 달 만에 금리를 인하해 독립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바 있다.

▲ 기재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필자는 여기서 한은의 독립성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기재부는 한은 통화정책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빛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불리기도 했던 '초이노믹스' 영향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현 정권에 큰 부담이 됐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은 초반부터 통화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부양 가능성을 배제한 채 경제정책을 운용해 왔고 거시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한 일은 지난해에만 25조 4천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일이다. 물론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경기 하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자를 잡겠다고 대출을 조여온 것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4.9%로 2004년 4분기의 4.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

가율은 지난해 3분기 6.7%, 4분기 5.8%를 기록한 데 이어 둔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3조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전분기(22조 8천억원 증가)나 전년 동기(17조 4천억원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경제위기는 과도한 부채 수준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시작된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출규제로 디레버리징이 이뤄질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부채를 늘려 이를 상쇄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경제 전반의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는 시점에 기재부는 25조 4천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실상의 긴축 정책을 자행했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한은 역시 그동안 경기를 낙관적으로 봤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긴축적 재정 운용이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

▲ 기재부, 의지와 비전 가지고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

문제는 기재부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나마 6조 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를 통해 실질성장률을 0.1%p 높일 것으로 기대한 기재부다. 시장에선 기재부가 문제의식도 뚜렷한 비전도 보이지 못한 채 등 떠밀려 추경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처음부터 추경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다.

추경 자체도 국회 공전으로 흐지부지될 상황이다. 기재부의 '플랜 B'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인데 그 플랜 B라는 게 금리 인하인 듯해 씁쓸하다.

"장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자기 업무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부처와 협조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자기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시너지가 나지 않는 분위기였다."

현 정권에서 장관직을 수행했던 한 인사가 얼마 전 사석에서 한 말이다.

현재 국민들이 기재부에 바라는 건 복잡한 통화정책 방정식을 풀어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다. 이음새가 허술해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경제부처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확대 거시정책의 의지와 비전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홍콩 시위 관련 사진 모음: 여기를 클릭](#)